

평창올림픽 개·폐회식장 방한 대책 허술



방풍막이 설치된 개폐회식장의 모습. 여전히 지붕은 없다. 대관령의 실리적인 칼바람에 노출되어 있어 관객이 4~5시간 동안 바람과 맞서야 한다.

개막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가장 먼저 치를 시험은 지붕없는 평창올림픽스타디움(개·폐회식장)에서 개회식을 치러내는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추운 곳인 대관령의 허허벌판에 철재로만 지은 평창올림픽스타디움이 잠실야구장처럼 지붕 없이 지어진 탓에 2월 엄동설한의 북극한파에 치명적인 속살을 드러내고 있다. 평창올림픽스타디움 맞은편의 황태덕장이 대관령의 추위를 가늠케 한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평창올림픽 개막일(9일)의 밤 기온은 영하 10~12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개회식 시작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기온은 곤두박질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1일 오후 7시 기온은 영하

7.5도였고 체감온도는 영하 11.1도였다. 본 행사가 시작되는 오후 8시에는 영하 8.9도까지 내려갔고 오후 9시에는 영하 10.4도까지 떨어졌다. 집으로 귀가할 오후 10시에는 영하 12.1도까지 곤두박질했다. 대관령의 특성상 영하의 기온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살인적인 칼바람이다. 칼바람에 살갓이 노출되면 1분도 버티지 못하고 발벌 떼게 된다. 제대로 된 방한복과 방한화 등을 갖춰 입지 않아 칼바람에 노출되면 저체온증과 동상 등의 한랭질환의 위험성에 노출된다. 대관령은 해발 772.4m의 고산지대에 위치해 바람과 안개, 기온 등 고산 기후의 특성이 나타나는 곳이다. 평창올림픽스타디움은 건설 초기부터 완공 이후까지 이 같은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개막이 코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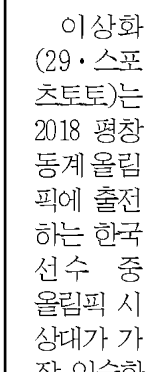
가장 추운 대관령 허허벌판에 철재로만 지어 美 시사주간지 '타임' "역대 최악 개회식될 듯"

으로 다가온 시점에도 뾰족한 방한 대책이 없다는 데 심각성이 더해진다. 평창조직위는 방한 대책으로 오각형 모양의 평창올림픽스타디움 가운데 관람석 뒤쪽에 투명 플라스틱으로 벽을 만들었다 이른바 방풍막이다. 하지만 뉴시스 취재 결과, 방풍막의 효과는 미약할 것으로 보였다. 화장실과 힌터 이용의 이유로 출입문이 자주 열릴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특히 관람객이 4~5시간 동안 앉아 있을 관람석 위쪽은 여전히 지붕이 없어 땀 뿜어내고 좌우측과 앞쪽에서 들이닥칠 칼바람을 막아낼 어떤 장치도 없었다. 방풍막이 아니라 살을 베는 듯한 고통을 느낄 정도의 칼바람을 100% 막아내지 못한 역부족해 보였다. 힌터 40개와 난방 힌터 18개를 갖출 것이라고 하지만 이 또한 뾰족한 대책이 못 된다는 지적이다. 이는 3만5000명까지 수용 가능한 관람석이 좁게 지어져 자칫 자리 이동이 잦을 경우 관람객의 개막식 관람을 방해하게 되면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무릎담요, 핫팩, 방석, 손·발 핫팩 등 방한용품 6종 세트는 기념품

'빙속여제' 이상화, 마지막 금컬렉터 日 고다이이라와 각축...이승훈도 주목

이상화(29·스포츠투트)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한국 선수 중 올림픽 시상대가 가장 익숙한 스타다. 2010년 밴쿠버 대회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500m에서 깜짝 금메달을 거머쥔 이상화는 2014년 소치 대회에서 타이틀 사수에 성공했다. 이상화에 이어 2위를 차지한 율가 파트롤리나(28·러시아)는 "이상화는 마치 우사인 볼트와 같다"면서 경의를 표하기도 했다. 올림픽 정상을 두 번이나 경험한 그녀이지만 만족은 없다. 자신의 마지막 올림픽이 될 평창에서 새 역사 창조를 노린다.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500m는 1960년 스퀴벨라(미국) 대회 때 처음 선을 보였다. 58년을 거치는 동안 3연패를 이룩한 선수는 미국의 보니 블레이어(1988·1992·1994)뿐이다. 블레이어의 3연패는 현행 4년 주기 올림픽에서 나온 기록은 아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동계와 하계 올림픽의 교차 개최를 위해 1992년 알베르빌 대회 이후 2년 만인 1994년 릴레함메르 대회를 치렀고 결과적으로 블레이어는 반사이익을 누렸다. 이상화가 평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면 8년 간격으로 3연패에 성공한 최초의 선수가 된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슈적' 고다이이라 나오(32·일본)를 넘어야 한다. 대개 은퇴를 고려할 30대에 전성기를 맞이한 고다이이라는 지난 시즌부터 각급 월드컵을 휩쓸고 있다. 고다이이라를 확실한 우승 후보로 보고 있는 일본은 그녀에게 선수단 주장이라는 중책을 맡겼다.

이상화는 차분히 올림픽에 맞춰 페이스를 끌어올렸다. 월드컵 3, 4차 대회에서 36초대 기록을 내며 건재를 알렸다. 4차대회 1, 2차 레이스에서는 첫 100m 기록이 10초2대를 찍었다. 이상화는 지난해 12월 '월드컵 3차 대회 때 감을 찾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본 무대는 올림픽이다. 올림픽 여자 500m 3연패에 대한 자신감은 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것이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 "고다이이라는 예전에 나와 1, 2위를 다투던 선수다. 예전 올림픽 때에도 기록 차를 줄여가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땀다"면서 정면승부를 예고했다. 배스스타트 황제로 통하는 이승훈(30·대한항공)의 선전도 기대된다. 남자 1500m·5000m·1만m·매스스타트·팀추월 출전권을 얻은 이승훈은 1500m를 제외한 4개 종목에서 빙판을 가른다. 노선영(29·폴링팀)은 우여곡절 끝에 평창 빙판을 지친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의 행정 착오로 올림픽 참가자격 자체를 갖추지 못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노선영은 지난달 24일 선수촌을 떠났다. 이후 SNS를 통해 "더 이상 국가대표라는 사실이 자랑스럽고, 국가를 위해 뛰고 싶지도 않다"면서 불만을 드러냈다. 그러나 이를 뒤 러시아 선수들의 도핑으로 국제빙상경기연맹(ISU)으로부터 출전권을 확보한 노선영은 2년 전 세상을 떠난 동생(노진규)의 꿈을 이뤄주기 위해 어렵게 복귀를 결정했다. 노선영은 1500m와 팀추월에 출전한다. 해외로 눈을 돌리면 여자 스피드스케이팅의 '철녀' 클라우디아 페히슈타인(독일)가 눈에 띈다. 46세의 나이에 7번째 올림픽을 치르는 선수다. 지난해 가을 월드컵 5000m에서 우승할 정도로 여전히 수준급의 실력을 자랑하고 있다. 1972년 2월22일생인 페히슈타인은 대회 기간 중 생일을 맞이한다.



고다이이라

이상화(29·스포츠투트)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한국 선수 중 올림픽 시상대가 가장 익숙한 스타다. 2010년 밴쿠버 대회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500m에서 깜짝 금메달을 거머쥔 이상화는 2014년 소치 대회에서 타이틀 사수에 성공했다. 이상화에 이어 2위를 차지한 율가 파트롤리나(28·러시아)는 "이상화는 마치 우사인 볼트와 같다"면서 경의를 표하기도 했다. 올림픽 정상을 두 번이나 경험한 그녀이지만 만족은 없다. 자신의 마지막 올림픽이 될 평창에서 새 역사 창조를 노린다.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500m는 1960년 스퀴벨라(미국) 대회 때 처음 선을 보였다. 58년을 거치는 동안 3연패를 이룩한 선수는 미국의 보니 블레이어(1988·1992·1994)뿐이다. 블레이어의 3연패는 현행 4년 주기 올림픽에서 나온 기록은 아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동계와 하계 올림픽의 교차 개최를 위해 1992년 알베르빌 대회 이후 2년 만인 1994년 릴레함메르 대회를 치렀고 결과적으로 블레이어는 반사이익을 누렸다. 이상화가 평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면 8년 간격으로 3연패에 성공한 최초의 선수가 된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슈적' 고다이이라 나오(32·일본)를 넘어야 한다. 대개 은퇴를 고려할 30대에 전성기를 맞이한 고다이이라는 지난 시즌부터 각급 월드컵을 휩쓸고 있다. 고다이이라를 확실한 우승 후보로 보고 있는 일본은 그녀에게 선수단 주장이라는 중책을 맡겼다.

이상화(29·스포츠투트)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한국 선수 중 올림픽 시상대가 가장 익숙한 스타다.

백핸드만큼이나 능수능란한 언변 정현, '팔방미인' 스타 등극

호주오픈 4강 신화의 주인공인 정현(22·한체대·삼성증권 후원·29위)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스타가 아니었다. 주무대인 테니스 코트를 벗어나서도 자신감이 넘치고, 100여명의 취재진 앞에서도 주눅 들지 않았다. 계속된 질문 공세에도 거침없이 자신의 생각을 털어냈다. 2일 장충동 반얀트리클럽앤스파 서울 더호텔에서 열린 리코스테와 함께하는 GS 4강 진출 축하 기자회견에서 만난 정현은 그랬다. 간담회는 정현의 달변 때문인지 여느 운동선수들과는 형식을 달리했다. 김환 아나운서의 사회로 토크쇼처럼 진행됐다. 호주오픈 당시에도 경기만큼이나 능수능란한 인터뷰로 많은 관심을 모은 정현이다. 이날 사회자는 물론 취재진의 질문 공세도 여유 있게 받아냈다. 재치있는 인터뷰 비결에 대해 정현은 "유사한 질문을 받다 보니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 같다"면서 "어릴 때부터 편한 사람들과 있을 땐 말을 잘하는 편이었다. 대표팀에서도 분위기를 이끌려고 한다"고 답했다. 의무 후원업체인 리코스테가 주최한 행사답게 정현의 패션도 눈에 들어왔다. 좀처럼 볼 수 없는 사복 패션이지만 운동선수답



한국 테니스 최초 그랜드 슬램 4강을 달성하며 역사를 새로 쓴 정현이 2일 오전 중구 반얀트리 클럽 앤스파 서울에서 열린 GS 4강 진출 축하 기자 간담회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멀끔한 차림 "과하지 않은 깔끔함이 패션 철학" SNS 팔로워 10만 돌파 "더 잘해 100만 가이죠"

게 스포티한 차림이 잘 어울렸다. 정현은 남색 바지에 흰색 피케 셔츠를 입고 그 위에 남색 카디건으로 멋을 냈다. 가르미를 타가지런히 빗어 넘긴 머리와 검은 뿔테 안경은 테니스 유화시절 얻은 별명인 '프로페서'와 꼭 맞았다. 평소 패션스타일을 묻자 "거의 운동복만 입고 생활을 하다 보니 패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보일 듯 보이지 않게 '깔맞춤'을 하는 것이 나름의 패션 철학"이라며 "공식적인 자리에서 후원사가 정말 잘 입혀주는 것에 감사한다"고 후원사에 공을 돌렸다. 그러면서도 "오늘 같은 경우 위아래 색깔을 맞춰는데 이걸 내 스타일은 아니다"고 솔직하게 말한 뒤 "신발하고 줄무늬를 맞춰 입는디든지 보일 듯 보이지 않게

대회를 거듭할수록 급증했다. 노박 조코비치(세르비아)와 16강전에서 승리하면서 10만명에 육박했고 로저 페더러(스위스)와 4강전을 마치고 10만명을 훌쩍 넘겼다. 정현은 "팀 내에서도 (팔로워 수가) 몇 배로 늘 것 같고 있다. 젊은 팬들이 많아졌는데 아무래도 내 경기를 좋게 봐준 것 같다"며 "10만명도 넘었으니 갈 때까지 가보고 싶다. 더 잘해서 100만명까지 가이겠다"고 농담진반했다. 1시간 가까이 계속된 간담회에서 정현은 진솔하고 여유로운 모습으로 스타기질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정현의 인터뷰 실력, 세계 최고선수로 성장하는 데 양손 백핸드만큼이나 강력한 무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드래곤즈 시즌 개막 전 '출정식 & 팬즈데이' 개최

전남드래곤즈(사장 신승재)가 시즌 개막에 앞서 지역민과 함께 소통하고 올 시즌 선전을 다짐하기 위해 '2018 전남드래곤즈 출정식 & 팬즈데이'를 개최한다. 이번 출정식 & 팬즈데이는 오는 10일 토요일 14시, 광양시 금호동에 위치한 포스코 어울림체육관에 진행된다. 이번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팬은 200명 선착순(당첨자 개별통보) 모집이다. 신청기간은 7일 18시까지 구단 담당자 이메일로 참가자 이름, 연락처를 남겨 주면 된다. (ckdmj430@dragons.co.kr) 출정식 & 팬즈데이 행사장은 13시부터 오픈되며, 행사장 입구에서 2018 시즌권 카드와 패키지 상품 등 다양한 merchandise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본 행사인 출정식과 팬즈데이는 2시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